



아시아 인권 교육·연대, 광주가 만형 역할 해줘야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오월정신을 말하다
8 에필로그

번역 자료 없어 오월정신 알리기 교육 한계
 열악한 환경 속 민주·인권운동 혼신 쏟는
 광주인권상 수상자 사후 관리시스템도 시급

5·18 민주화운동은 내년이면 36주년을 맞는다.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 소수 민족들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광주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화의 도시로 우뚝 선 것이다.

특히 광주인권상은 '광주 정신' 또는 '5·18 정신'을 널리 알리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인권운동가 등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5·18 35주년을 맞아 일곱 차례에 걸쳐 이들의 활동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광주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봤다. 취재 결과 광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선 개선돼야 할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시아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 운영·관리시스템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인권상이 제정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모두 22명(특별상 3명 포함)이다.

나라별로는 ▲인도 3명 ▲한국 2명 ▲버마 2명 ▲인도네시아 3명 ▲스리랑카 2명 ▲파키스탄·네팔·통기모르·이스라엘·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이란·태국·라오스 1명씩 등 모두 15개국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인권환경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서 인권 및 사회운동,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국의 열악한 민주·인권 현실에 '광주 정신'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또 청년·여성·난민·노동 등 각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소외된 서민과 소수 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한편,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처한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희망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이들은 5·18 기념재단의 민주·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5월 항쟁이 명실공히 아시아 민주화의 선진 모범사례로 우뚝 서기 위해선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확보와 사후 관리시스템 개선, 아시아 인권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여·63·Wardah Hafiz)씨는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뒤 인도네시아 빈민들에게 5월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인데,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책 또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교육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만난 지난 2001년 수상자 스리랑카 출신인 페르난도 위원장(71·W.P.J. Basil Fernando)은 "광주(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민주·인권단체들과의 연대가 부족해 단기간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유지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만 해도 인권활동가 30명이 홍콩을 포함한 인도·파키스탄·필리핀 등 8개 나라에서 각국의 인권단체와 연대, 활동 중"이라며 "광주가 아시아 국가의 민주·인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0년 수상자인 네팔 인권활동가 수실 파큐렐(64·Sushil Pakyurel)씨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정치·종교적으로 인해 인권환경이 열악한 데다 경제적으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인권교육과 함께 경제적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청년·여성·난민·노동 등 각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지난 2013년 5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시아 민주·인권현장 취재기



이종행 기자

인도 빈민촌의 나눔·화합

희망 찾는 '5월 정신'

광주는 실천하고 있는가

취재진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인도네시아 꼬따(Kota) 무아라 바루(Muara baru) 빈민촌을 찾았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약 40km 떨어진 도심 빈민촌이다. 한국 나이로 올해 일곱 살인 크리스틴(여)은 비좁은 골목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인들에게 봉지 음료를 팔고 있었다. 어린 소녀는 부모를 잃은 소녀가장이다.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흙탕물에 맨발로 담근 소녀는 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행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도 마다하지 않고 벗어 주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했던가. 행인들 역시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자신들보다 사정이 더 급한 어린 소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나눔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베풀 때 배가 된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같은 날 오후 2시 바루 빈민촌 마을회관에서 새로 팔 우물 위치를 놓고 주민들간 토론이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출구까지 거리는 800m(직선거리) 가량인데, 이번에 새로 우물의 위치는 출구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입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700m 가량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내 편, 내 편' 편을 갈라 싸우지 않았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갔다.

마을 원로가 "이번엔 출구 쪽에, 다음엔 입구 쪽에 우물 위치를 정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자 주민들은 순순히 응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빈민촌 헤르딘(여·38)씨의 집에

서 마을 주민 15명이 모여 수마(水魔)가 활귀고 간 목재 가족을 복구하고 있었다. 4평 남짓한 목재 가족은 며칠 전 집중호우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남정네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에서 쓸만한 장판·벽지·널빤지 등을 챙겨왔고 아낙들은 흙탕물에 잠긴 세간을 씻어냈다.

한 남성은 "이웃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민들이 화합해 서로 도와주는 게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곳 빈민촌엔 크리스틴과 헤르딘 같은 처지의 빈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주민은 1달러짜리 생수 한 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삶을 살더라도 이웃과 더불어 산다.

나누고 베풀며 화합하는 삶의 방식이 자신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곳을 취재하면서 광주가 대내외에 그토록 알려려는 5월 정신을 떠올렸다. '나눔·소통·화합'으로 대변되는 5월 정신, 광주는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기자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해외 취재일정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왔다.

광주에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정부와 5월 관련단체가, 5·18 기념재단 노사가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각종 현안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내일의 희망은 있다'는 일곱 살 어린 소녀의 말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또 나누고 베풀며 소통하는 5월 정신, 과연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자와 가진 것은 많지만 희망이 없는 자 중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안다. 크리스틴의 말처럼 부끄러움은 가난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데 있다.

5·18엔 과연 희망이 있는가.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